**교제와 나눔**

**ㆍ교회당예배:** 주일 15시 예배, 비대면예배 16시. 토요일에 예배참석 신청 마감.

**ㆍ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헌금:** 다음 주일부터 부활절까지 계속하겠습니다.

**ㆍJC캠프 관련 공지:** 4월18일-21일 예정이었던 현장캠프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초 주말(금,토)에는 조금 다른 형식의 regional JC Camp가 4개 도시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4월18일-20일까지 Siegen CVJM 수양관에서 Teamertagung이 진행됩니다.

**ㆍ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사역을 함께 섬기실 분들을 찾습니다.**

**ㆍ뒤메나라 모임:** 3월 24일(목) 20시 온라인

**ㆍ장애인선교단-유럽밀알 주관 ‘다리음악회’:** 3월 26일(토) 16시 Petruskirche Kiel

hamvoba.viele-schaffen-mehr.de/brueckenkonzert-2022 **링크 클릭하여 후원가능**

**ㆍ지난 주 출석:** 이병하-민수영

**ㆍ귀가:** 손재호

**\*\* 함께 기도합시다 \*\***

1)교회당예배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하소서.

2)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3)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4)공의와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침략자에게서 속히 구해 주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레13:1-17 월/레13:18-39 화/레13:40-59 수/레14:1-20

목/레14:21-32 금/레14:33-57 토/레15:1-18 일/레15:19-33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97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3월 20일** | **3월 27일** | **4월 3일** | **4월 10일** |
| **예배기도** | 권순아 | 손재호 | 정보현 | 조경숙 |
| **말씀일기** | X | 김성희 | 유근임 | 김종권 |
| **안내위원** | 예배부 |
| **헌금위원** | 나지홍 박성희  | 백윤정 이선영 |

**39-12호 2022년 3월 20일**



 **“서로 위로하라”** (살전4:18)

주일예배 15: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5:00 Teestube

청소년부 15:00 Teestube

청년부 성경공부 16시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3. Fastensonntag)**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인도자 |  |
| ※찬송/Gemeindelied ……….......................... 33장 1절 ....................................... | 다 함 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126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98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찬양/Chor ………........................ 464장 믿음의 새 빛을 ……………….. | 권순아 집사다 함 께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행 8:1-8 ……….………………..……. | 인도자 |
| .설교/Predigt ..........................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라** …………….…. |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찬송/Gemeindelied .………............................. 508장 ………………….….……..…..봉헌/Kollekte……….......................................................................................................... | 설교자다 함 께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레11:24-47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먹는 데까지 세세한 규례를 주시는 걸까? 분명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시려는 것은 아닐 터인데, 그렇다면, 거꾸로 이런 세세한 규례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닌가?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 뭘 먹일지 어떻게 먹일지에 그토록 관심이 많은 걸 보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44b)는 말이 오늘 본문의 먹거리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핵심 의도가 아닐까 싶다. 바로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45).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고, 먹거리야말로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부정함을 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내 경험으로 보면,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다. 사실상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더러운 것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하지만, 적당히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언제나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 같다. 나눠 먹는 일이 중요한 요즘 세상에서, 과식은 거의 죄악 수준이 아닐까? 더군다나 요즘에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먹는 일에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 더 어렵게 되었다. 세상의 많은 먹거리들은 점점 인스턴트 상품화가 되어 가고, 오염된 먹거리들로 인해 공포와 불안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먹거리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44). 맞다. “밥이 하늘”인 것을… 하지만 먹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주시기도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안타까운 일이다.